

## WTP를 이용한 다문화가족\*이 농촌사회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 및 기여가치 평가\*\*

양순미\*\*\*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

### 국문요약

농촌의 인구활력화,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의 문화다양성, 농촌 가족사회의 유지, 그리고 농촌자원의 향상과 같은 다문화가족이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기여가치에 대한 WTP(Willingness to Pay)를 추정하기 위해, 농촌지역 41개 시·군에서 weibull model에 기초한 이중이선선택법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어 추정모형을 개발하고 로지스틱(logistic)을 이용해 WTP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다문화가족의 기여가치 유지를 위해 농촌지역민이 평가한 WTP는 458억원이었고, 이것은 개개 농촌가구가 연간 13,840원을 지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비교준거로서 다문화가족 남편이 평가한 WTP는 502억원 이었고 이것은 개개 농촌가구가 연간 15,170원을 지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요어: 다문화가족, 농촌, 지불의사, 영향

\* 본 논문에서 다문화가족의 영향 및 기여가치는 여성결혼이민자 수용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효과의 차원으로 제한하여 접근한다.

\*\* 본 연구는 2011-2012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연구과제(PJ90706603)의 일부임

\*\*\* 교신저자(양순미) 전화: 031-290-0286, email: ysm@korea.kr  
441-707) 수원시 서둔동 250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1. 문제제기

농촌미혼남성들의 만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 초반에 대안적으로 시작된 국제결혼으로 수 천년간 지속되어온 단일민족의 정체성이 와해되고 우리사회에 다문화가족이 새로운 가족유형으로 정착하면서 다문화사회가 연착륙하는 계기를 가져왔다(양순미, 2011a).

이와 관련하여 다문화사회 도래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편익 혹은 비용에 대한 논란들이 제기되면서 이를 경험적으로 규명하는 노력들이 있어왔다. 예를 들면 외국인노동자 유입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효과(이한숙, 2004; 이해춘·이규용·조준모, 2004), 다문화인구의 유입으로 인한 편익-비용 효과 분석(강수향, 2011; 설동훈 등, 2009; 이삼식·최효진·박성재, 2009)이 해당된다.

그런데 농촌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이 지니는 의미는 도시에서 이들 가족이 지니는 그것들과 다르다. 과소화 되고 고령화된 농촌사회<sup>1)</sup>에서 다문화가족으로 인해 20년 만에 다시 아기의 탄생소리가 울리고 있으며(LA TIMES, 2006),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마을 이장이나 부녀회장, 후계농업인력 등 리더로 부상하면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엮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인테러뱅, 2012). 또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의 44%가 친정국가에서 씨앗을 가져와 한국에서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면서(양순미, 2009) 우리 농업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장터나 체험교실을 곁들여 펍키지화 함으로써 다문화테마의 자원적 가치를 제고하고 관광상품화도 가능하게 한다(양순미, 2011b).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농촌사회에서 이러한 변화를 경험적으로 계량화 또는 지수화하여 평가하려는 작업들은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

1) 1970년의 총 인구중 농가인구의 비중이 44.7%이던 것이 2011년 전체인구에서 6% 수준으로 과소화되었고, 2011년 고령화율이 33.7%에 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이 농촌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및 기여 가치와 관련된 하위영역을 설정하였다. 이어 이들 영역간에 상대적인 중요성의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 전제하며 이를 지불의사로 추정하기 위해 가상가치평가법(CVM)을 적용하여 설문지와 추정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여 다문화가족이 농촌사회에 미치는 기여가치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고 지수화하려 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은 농촌 다문화사회의 영향 평가, 다문화정책 투자 결정의 지침, 다문화정책 설계 등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본다.

##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2.1. CVM에 의한 지불의사 추정 방법 고찰

가상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은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이용하고 비시장재화를 위해 혹은 비시장재화의 개선을 위해 어느 정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지(WTP: willingness to pay)를 소비자에게 직접 설문하여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환경경제학 분야에서 발전되어 온 가상가치평가법은 공익성이 큰 환경재화나 자연경관, 휴양지, 산림, 야생동물 등 주로 자연재화의 가치평가에 폭 넓게 사용되어 왔으나(Le Goffe & Gerber, 1994; Fujimoto, 1998; Cooper & Loomis, 1991), 최근에 스포츠(Johnson & Whitehead, 2000), 예술(Thompson 등, 2002), 유적지(Chambers 등, 1998), 건강(Gyldmark & Morrison, 2001), 도서관의 사서서비스(Harless & Allen, 1999) 등의 가치평가와 가족복지정책(Drago 등, 2001) 및 여가정책(Christie, 1999) 등의 정책평가에 이르기까지 그 적용이 광범위하

게 이뤄지고 있다(이희찬, 2002에서 재인용).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기 위한 적용모델에는 lower-bounded Turnbull method, Weibull model, Spike model 등이 있다. lower-bounded Turnbull method는 각각의 제시금액에 대한 1단계 질문에서 yes/no에 대한 정보만을 이용하여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고, Weibull model은 제시한 금액에 따른 1단계와 2단계 질문에 대한 4가지 유형의 반응(yes-yes, yes-no, no-yes, no-no) 정보를 이용하여 추정하며, Spike model은 Weibull model에서 이용되는 정보 뿐만 아니라 no-no로 응답하는 경우, 지불할 의사가 없는지의 여부에 대한 정보까지를 포함하여 추정한다(김예신 등, 2003).

CVM을 이용하여 지불의사를 추정하는 설문형태는 주로 개방형(open-ended question)과 양분선택형(dichotomous choice)이 있다. 개방형의 경우, 설문자는 어떠한 금액도 제시하지 않고 가치평가 대상에 대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응답자가 직접 써내도록 한다. 양분선택형은 다시 이중 양분선택모형과 단일 양분선택모형으로 구분된다. 이중 양분선택모형(dichotomous choice with a follow-up)은 일단 어떤 특정 금액을 제시하고, 이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응답하는 경우, 첫 번째 제시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시하는 한편,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제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일 양분 분석모형의 경우, 조사자가 제시하는 금액에 대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예와 아니오”로 대답하게 하여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한편 단일양분 분석모형에서 로짓 모형(logit model)을 이용할 경우 지불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누적분포 함수는 다음과 같다.

$$F_{\theta}[\Delta v] = \frac{1}{1 + \exp(-\Delta v)}$$

여기서  $[\Delta v]$ 의 함수형태를 선형함수( $\alpha + \beta_i x_i$ )로 가정할 경우, 선형 로지스틱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P(\Delta v) = (1 + e^{-(\alpha + \beta x)})^{-1}$$

이중 양분선택형의 경우, 다음과 같은 로그우도함수(log likelihood function)로 나타내어 내재적 지불의사액을 추정한다(농림부, 2001).

$$\ln L = \sum_i (I_{1i} I_{2i}) \log[1 - \Phi(a_{2i})] + I_{1i} (1 - I_{2i}) \log[\Phi(a_{2i}) - \Phi(a_{1i})] \\ + (1 - I_{1i}) I_{2i} \log[\Phi(a_{1i}) - \Phi(a_{2i})] + (1 - I_{1i})(1 - I_{2i}) \log[\Phi(a_{2i})]$$

## 2.2. 다문화 영향 및 기여가치 평가 영역

다문화가족 수용에 따른 영향평가 영역과 그에 따른 지원 성향을 논의하는 선행연구들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닌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극복의 관점에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Kronauer, 1998; Silver, 1994). 하층계급의 구성원들이 주류사회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시민으로서 활동할 수 없으며, 배제의 영역은 경제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정치적·문화적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다의적 차원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배제가 발생하고 있는 영역에 대해 경험적 연구를 토대로 재구성한 Kronauer(1998)는 하층계급의 사회적 배제가 발생하는 영역을 노동, 경제, 문화, 사회적 고립, 공간, 제도의 여섯가지 영역으로 제시하였다.

설동훈 등(2009)은 Kronauer의 견해에 기초해서 결혼이민자의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영역을 노동시장, 복지, 사회적 고립 극복 및 공간적

격리 극복, 문화 향유, 정치참여, 연쇄이민(가족이민, 이민의 장기지속)의 여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전문가델파이 조사를 통해 설문문항을 구성하고 각 영역에 따른 편익과 비용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강수향(2011)은 이주민 유입의 인구·사회·경제적 편익과 비용 효과를 노동 및 소비, 문화개방성 및 다양성, 국가 경쟁력 증진,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 내국인의 피해, 문화적 갈등, 사회적 비용 증가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김갑석(2009)은 다문화가정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인식을 정책, 경제, 사회, 문화 영역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으나 각 영역을 구성하는 설문내용의 연계성 및 변별력이 약하고 내용 및 구인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한계를 갖는다. 이해춘·이규용·조준모(2004)는 외국인력 고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보상의 효과를 심리적 불편과 심리적 호감, 치안행정 수요의 증가와 감소, 집단갈등과 화합, 혼잡과 편의, 국가 이미지 악화와 개선의 차원으로 설정하여 접근하고 있다.

한편 인종 및 문화적 배경이 다양한 이민자들과의 접촉은 유입국의 국민들이 문화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폭넓게 수용하게 하고(Gudynust & Kim, 1994; 김옥순, 2008 재인용), 외국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나 유입국을 외국에 알리는 계기를 확장하기도 한다(이해춘·이규용·조준모, 2004).

이러한 선행연구들이 제시하는 요인 이외에도 농촌 다문화의 영향 및 기여가치를 평가하는데 농촌다문화 사회의 출현 배경이 미혼남성들의 만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을 선택하면서 시작되었고(양순미, 2011a), 결혼이민여성의 유입으로 농촌사회에 20여 년만에 생명이 탄생하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다시 울리게 되었다(L.A. Times, 2006). 이들이 과소화·고령화된 농촌사회에 새로운 리더로 부상하면서 농업의 역군으로 성장하고 있으며(인테러뱅크, 2012), 다문화로 아열대 작목 등 농촌의 자원 가치가 향상하고 있다(양순미, 2011b, 2011c)는 점들을 포괄해야 할 것으로 본다.

### 3. 연구방법

#### 3.1. 추정모델 구성 및 분석 방법

이 연구는 다문화가족이 농촌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및 기여가 치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기 위하여 가상가치 평가법(CVM)을 이용하였으며, 지불의사금액을 유도하기 위한 설문지를 개발하고, 지불의사(WTP) 추정 모형을 개발하여 지불의사금액을 산출하였다. 여기에서 초기 제시금액은 투표모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출발점 편향(starting point bias)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저변의 인지도가 높고 대표적인 공익적 기부금의 성격을 띠는 적십자회비 1회 최저 납입액인 6,000원으로 설정하였다. 이어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기 위해 이용한 모델로는 Weibull model에 의한 이중양분선택형(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이하 DBDC)을 이용하였다. 즉 6,000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는 경우, 첫 번째 제시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12,000원을 제시하여 지불의사를 묻고 한편,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제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3,000원을 제시하여 지불의사를 확인하였다.

이를 분석과정에서는 DBDC로 응답된 통계치를 지불의사 유무로 재조합한 다음 SAS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선형로지스틱 함수로 나타내고, 최우추정법을 이용해 모수를 추정한 다음 지불의사(WTP)의 평균을 구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를 위한 설명변수는 한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교육수준, 종교, 사회경제적 요인 이외에 개인의 이념성향,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과 같은 한국인의 가치체계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김병조 등, 2011) 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연령, 교육수준, 생활수준, 생활만족, 결혼이민자 유입에 대한 총 효용 평가, 이념성

향,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추정모델의 설명변수로 구성하였다(표 1). 이를 선형로지스틱 함수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지불의사액 도출 과정에서 선행연구(농림부, 2001) 사례를 응용하여 설명변수를 모두 이용한 완전형과,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설명변수를 제외한 축소형 중에서 축소형을 최종적인 것으로 선택하여 추정하였다.

$$P(\Delta v) = (1 + e^{-(\alpha + \beta x)})^{-1}$$

〈표 1〉 추정식의 독립변수

| 변수       | 내용                                     |
|----------|--|
| $\alpha$ | 상수                                     |
| $X_1$    | 연령                                     |
| $X_2$    | 교육수준(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
| $X_3$    | 5점 서열형(매우 불만족(1)에서 부터 매우 만족(5))        |
| $X_4$    | 6점 Likert(하하(1)에서 부터 상상(6))            |
| $X_5$    | 5점 서열형(손실이 훨씬 크다에서 부터 이익이 훨씬 크다)       |
| $X_6$    | 5점 서열형(매우 진보적(1)에서 부터 매우 보수적(5))       |
| $X_7$    | 5점 서열형(전혀 자랑스럽지 않다(1)에서부터 매우 자랑스럽다(5)) |

### 3.2. 설문지 구성

다문화가족이 농촌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차원의 영향 및 기여도를 측정하는 척도는 여러 선행연구(농림부, 2001; 설동훈 등, 2009; 양순미, 2011b, 2011c; 이삼식, 2009; 이해춘 등, 2004; 인테리뱅크, 2012; Kronauer, 1998; Silver, 1994 등)를 토대로 구성하였다. 1차적으로 다문화가족이 농촌사회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 및 기여가치를 평가하는 지표를 5영역 27세부항목<sup>2)</sup>으로 구성하여 이를 토대로 척도를 작성하여 2011년

2) 2영역(인구/경제)의 5개 지표[생산가능인구, 중위연령, 출생률, 농림어업 GDP성장률, 농림어업GDP성장률과 농촌(농가)결혼이민여성 유입과의 상관성]는 2011년에 통



11월 전문가 3인의 감수를 통해 구인 및 내용 타당도, 변별력 등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구인 및 내용 타당도는 5점 만점 기준 각각 4.3점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이어 2012년 4~5월에 2차적으로 현장의 예비조사를 통해 설문대상자들의 설문내용에 대한 이해력, 변별력 등을 검증하여 최종적으로 긍정적인 영향 및 기여도를 측정하는 척도를 5영역 20문항으로 완성하였다. 완성된 척도는 인구활력 유지 영역(고령화: 중위연령 증가 및 출생률 감소, 노인인구 부양능력, 생산가능인구 증가), 경제 및 노동력 향상 영역(농업활동 기여, 취업활동 기여 등), 문화다양성 및 한류세계화 영역(다양성, 수용성, 증가, 한류세계화), 가족 및 사회 유지 영역(미혼남성결혼 문제 해결, 리더 확보 등), 농촌자원 가치 향상 영역(다문화자원, 아열대 작목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영역별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3~5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Likert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가족이 농촌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및 기여가치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척도의 내적일치도 및 신뢰도 계수는 인구활력 유지 영역의 경우 농촌 지역민의 Cronbach's  $\alpha = .80$ , 다문화가족 남편의 Cronbach's  $\alpha = .82$ 이었다. 경제 및 노동력 향상 영역의 경우 농촌지역민은 Cronbach's  $\alpha = .76$ , 다문화가족 남편 Cronbach's  $\alpha = .79$ 이었다. 문화 다양성 및 한류세계

---

계청 데이터(1995~2010년)를 재분석하여 객관적인 차원에서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농촌 면 지역 출생인구가 2005년 40.11명에서 2010년 47.61명으로 증가율이 7.5명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동 지역 출생증가율 3.36명(31.80명→35.16명) 및 전국 출생증가율 3.7명(33.22명→36.92명)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또한 농촌 면 지역의 경우 여성 중위연령(전체 인구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 증가폭이 1995년~2000년 4세에서 2000년~2005년 5.6세로 늘어나다가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기 시작한 2005년~2010년 3.4세로 급격히 떨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를 지연하면서 농촌인구활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동아일보, 2012; 양순미, 2012).

화 영역의 경우 농촌지역민은 Cronbach's  $\alpha = .82$ , 다문화가족 남편 Cronbach's  $\alpha = .85$ , 가족 및 사회유지 영역의 경우 농촌지역민은 Cronbach's  $\alpha = .80$ , 다문화가족 남편 Cronbach's  $\alpha = .83$ , 농촌자원가치 향상 영역의 경우 농촌지역민은 Cronbach's  $\alpha = .90$ , 다문화가족 남편은 Cronbach's  $\alpha = .89$ 로 나타났다.

한편 추정모델에 사용된 변수중, 이념성향과 한국인의 자긍심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는 김병조 등(2011)을 인용하여 이념성향은 5점 서열형으로 매우 진보(1)에서 부터 매우 보수(5)까지로, 한국인의 자긍심은 5점 서열형으로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1)에서 부터 매우 자랑스럽다(5)까지로 모두 단일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농촌생활만족도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농촌생활에서 기대하던 일정한 목표나 욕구의 달성에 대한 주관적이고 총체적인 감정상태를 뜻하는 것으로서 척도는 Cantrill(1965)의 척도(조완규, 1993, 재인용)와 양순미(2006)와 양순미 등(2009)의 연구를 참고하여 단일차원의 단일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척도는 '매우 불만족(1)'에서 부터 '매우 만족(5)'까지 5점 서열형으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농촌생활에 대한 총체적인 만족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생활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는 양순미(2001)의 6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연령, 학력은 양순미(2001)의 척도를 이용하여 개방형으로 질문한 뒤 분석과정에서 학력은 초등학교졸에서 대졸 수준까지 연속적으로 재배열하여 활용하였다.

### 3.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농촌지역의 이장·부녀회원 등 남성 및 여성 지역민과 다문화가족의 남편이다. 조사는 2012년 6월 7일부터 6월 20일 사이

에 이루어졌으며, 계통추출에 의해 선정된 전국 187개 농촌생활지표 조사마을중 전국 8개도 41개 시·군의 41개 마을과 인근 마을을 중심으로 농촌지역민과 다문화가족 남편이 각각 500명씩 조사되었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자료를 이용해서 41개 마을에 대한 농촌생활지표조사 현지 모니터들이 해당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으며 응답자가 자기기록하는 식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후 농촌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총 485명의 자료, 다문화가족의 남편을 대상으로 하는 총 437명의 자료가 회수되어 분석에 활용되었다. 다문화가족 남편의 자료는 농촌지역민이 평가하는 다문화가족의 영향 및 기여가치에 대한 비교준거의 차원에서 분석·활용되었다.

## 4. 연구결과 및 해석

### 4.1. WTP 추정 모델에 이용된 설명 변수들의 일반적인 특성

WTP 추정을 위해 사용한 변수들중 농촌지역민의 연령은 평균 54.11세, 다문화가족의 남편들의 연령은 평균 46.22세이었다. 농촌지역민들의 학력은 평균 2.78, 다문화가족 남편들의 학력은 평균 2.83으로써 모두 고등학교 졸업을 약간 밑도는 수준이었다(표 2).

한편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는 지역민과 다문화가족 남편 모두 3.5를 밑도는 중간 수준이었고, 이념성향에 있어서도 두 집단 모두 3.0에 근접한 수준으로써 진보도 보수도 아닌 중간성향을 지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두 집단간의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생활수준, 결혼이민에 대한 총 효용 평가,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에 대한 두 집단간의 인식 차이는 모두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생활수준 및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수준은 다문화가족 남편보다 지역민이 높게 인식하였으며, 결혼이민에 대한 총 효용 평가는 지역민 보다 다문화가족 남편이 높게 인식하였다(표 3).

〈표 2〉 조사대상의 교육수준 및 연령 특성

| 연령      | n(%)        |             | 교육수준    | n(%)       |            |
|---------|-------------|-------------|---------|------------|------------|
|         | 지역민         | 다문화남편       |         | 지역민        | 다문화남편      |
| 40세 이하  | 13(2.7)     | 70(16.4)    | 초졸      | 59(12.6)   | 33(7.9)    |
| 41~50세  | 115(24.2)   | 262(61.5)   | 중졸      | 119(25.4)  | 88(21.0)   |
| 51~60세  | 272(57.3)   | 86(20.2)    | 고졸      | 219(46.8)  | 253(60.2)  |
| 61~70세  | 67(14.1)    | 7(1.7)      | 전문대졸    | 9(1.9)     | 9(2.1)     |
| 71세 이상  | 8(1.7)      | 1(0.2)      | 대졸 이상   | 62(13.3)   | 37(8.8)    |
| 계       | 475(100)    | 426(100)    | 계       | 468(100)   | 420(100)   |
| M(S.D.) | 54.11(7.24) | 46.22(6.14) | M(S.D.) | 2.78(1.12) | 2.83(0.93) |

〈표 3〉 추정에 사용된 변인들의 특성

| 변인               | 집단       | M(S.D)     | paired-t값 |
|------------------|----------|------------|-----------|
| 농촌생활만족           | 지역민      | 3.30(0.79) | 1.25      |
|                  | 다문화가족 남편 | 3.24(0.82) |           |
| 생활수준             | 지역민      | 3.69(0.95) | 8.63***   |
|                  | 다문화가족 남편 | 3.10(1.02) |           |
| 결혼이민에 대한 총 효용 평가 | 지역민      | 3.38(0.98) | -5.64***  |
|                  | 다문화가족 남편 | 3.76(1.02) |           |
| 이념성향(진보·보수)      | 지역민      | 3.06(0.94) | 0.18      |
|                  | 다문화가족 남편 | 3.03(0.87) |           |
| 한국인으로서 자긍심       | 지역민      | 4.18(0.84) | 4.34***   |
|                  | 다문화가족 남편 | 3.94(0.94) |           |

## 4.2. 지불의사 유무의 양상

다문화가족이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기여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지불의사는 하위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다섯가지 하위영역의 상대적 중요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4〉에 의하면 농촌지역민 응답자중 64.46%가 다문화가족이 농촌의 출생률 저하, 고령화 지연, 생산인구 증가 등 인구활력에 기여하는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불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영역중 지불의사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서 경제여건 및 노동력 향상 영역은 59.92%, 문화다양성 및 한류의 세계화 영역은 57.85%, 미혼남성 결혼문제 해결 및 농촌가족 유지 영역은 55.90%, 농촌자원가치 향상 영역은 54.66%로써 이의 순서로 지불의사를 높게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남편은 인구활력에 대해서는 65.03%가, 경제여건 및 노동력 향상 영역은 63.72%, 미혼남성 결혼문제 해결 및 농촌가족 유지 영역은 61.77% 문화다양성 및 한류의 세계화 영역은 61.16%, 농촌자원가치 향상 영역에 대해서는 59.02%의 순서로 지불의사를 높게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지불의사 비율은 농촌지역민과 다문화가족 남편 모두에 있어서 인구활력영역이 가장 높고, 경제영역이 두 번째로 높았다. 그러나 세 번째 순위에 있어서 농촌지역민은 문화 영역을, 다문화가족 남편은 가족사회유지 영역을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표 4〉 하위영역별 지불의사 유무 양상

| 하위영역별 지불의사 유무                        |    | 지역민        | 다문화가족 남편   |
|--------------------------------------|----|------------|------------|
|                                      |    | n(%)       | n(%)       |
| 인구활력<br>(출생율 향상, 고령화지연 등)            | 있음 | 312(64.46) | 279(65.03) |
|                                      | 없음 | 172(35.54) | 150(34.97) |
| 경제<br>(경제여건 및 노동력 향상 등)              | 있음 | 290(59.92) | 274(63.72) |
|                                      | 없음 | 194(40.08) | 156(36.28) |
| 문화<br>(다양성 및 한류의 세계화 등)              | 있음 | 280(57.85) | 263(61.16) |
|                                      | 없음 | 204(42.15) | 167(38.84) |
| 가족사회<br>(미혼남성 결혼문제 해결 및<br>농촌가족유지 등) | 있음 | 270(55.90) | 265(61.77) |
|                                      | 없음 | 213(44.10) | 164(38.23) |
| 농촌자원<br>(아열대 작물, 다문화사업 등)            | 있음 | 264(54.66) | 252(59.02) |
|                                      | 없음 | 219(45.34) | 175(40.98) |

#### 4.3. 지불의사(WTP) 추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기여가치평가

##### 4.3.1. 하위영역별 평균 지불의사액(WTP)

농촌지역민이 평가한 다문화가족이 농촌사회의 고령화지연, 출생률 증가, 생산인구 증가 등에 기여하는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지불의사에 유의하게 작용하는 변인은 농촌생활만족도와 결혼이민자 유입에 대한 총효용 평가이었다. 설명변인을 모두 이용한 완전형 모형과 유의성을 가진 변인만을 이용한 축소형 모형을 비교한 결과, 도출된 평균 지불의사액은 유사하였다. 축소형을 최종안으로 선택할 경우 평균지불의사액은 3,361원이 된다. 다문화가족 남편이 평가한 지불의사에 유의하게 작용하는 변인은 다문화가족 남편들의 이념성향 이었다. 축소형을 최종안으로 할 경우 평균지불의사액은 3,465원이 된다(표 5).

농촌지역민이 평가한 다문화가족이 농촌의 경제와 노동력 향상에 기여하는 현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지불의사에 유의하게 작용하는 변인은 농촌생활만족도와 결혼이민자 유입에 대한 총효용 평가이었다. 축소형을 최종안으로 할 경우 평균지불의사액은 2,858원이 된다. 다문화가족 남편이 평가한 지불의사에 유의하게 작용하는 변인은 다문화가족 남편들의 이념성향과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이었다. 축소형을 최종안으로 할 경우 평균지불의사액은 3,167원이 된다(표 6).

농촌지역민이 평가한 다문화가족이 농촌 문화의 다양성과 한류세계화에 기여하는 현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지불의사에 유의하게 작용하는 변인은 농촌생활만족도와 결혼이민자 유입에 대한 총효용 평가이었다. 축소형을 최종안으로 할 경우 평균지불의사액은 2,691원이 된다. 다문화가족 남편이 평가한 지불의사에 유의하게 작용하는 변인은 다문화가족 남편들의 이념성향이었다. 축소형을 최종안으로 할 경우 평균지불의사액은 2,922원이 된다(표 7).

농촌지역민이 평가한 다문화가족이 농촌 미혼남성의 만혼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등 농촌 가족 및 사회 유지에 기여하는 현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지불의사에 유의하게 작용하는 변인은 생활수준과 결혼이민자 유입에 대한 총효용 평가이었다. 축소형을 최종안으로 선택할 경우 평균지불의사액은 2,537원이 된다. 다문화가족 남편이 평가한 지불의사에 유의하게 작용하는 변인은 다문화가족 남편들의 이념성향과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이었다. 축소형을 최종안으로 할 경우 평균지불의사액은 2,952원이 된다(표 8).

농촌지역민이 평가한 다문화가족이 농촌에 아열대 작물을 도입하여 재배하는 등 농촌의 자원적 가치를 향상하는데 기여하는 현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지불의사에 유의하게 작용하는 변인은 농촌생활만족도와 결혼이민자 유입에 대한 총효용 평가이었다. 축소형을 최종안으로

할 경우 평균지불의사액은 2,382원이 된다. 다문화가족의 남편이 평가한 지불의사에 유의하게 작용하는 변인은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이었다. 축소형을 최종안으로 할 경우 평균지불의사액은 2,626원이 된다(표 9).

종합적으로 하위영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농촌지역민의 지불의사에 유의하게 작용하는 변인은 농촌생활만족도, 결혼이민자 유입에 대한 총효용평가, 생활수준이었다. 즉 농촌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이민자 유입에 대한 총효용 평가가 이익이 큰 것으로 평가할수록,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농촌지역민은 다문화가족의 기여가치 유지를 위해 특별금을 지불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의 남편의 지불의사에 유의하게 작용하는 변인은 이념성향,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이었다. 즉 다문화가족 남편들의 이념성향이 진보적일수록, 그리고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이 높을수록 특별금을 지불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농촌지역민과 다문화가족의 지불의사에 유의하게 작용하는 변인은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농촌지역민의 평가에는 농촌 내집단적 상황이 중요한 준거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다문화가족 남편은 외집단적 상황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 본다. 즉 다문화가족의 남편들은 농촌지역민 보다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이나 주관적 이념성향과 같은 가치체계에 대한 몰입정도가 깊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게 느낄수록 외국인에 대한 포용성향이 크다는 연구결과(김병조 등, 2011)와 부분적으로 유사하였다.



〈표 5〉 인구활력 유지를 위한 지불의사

| 변수                                | 농촌 지역민      |             | 다문화가족 남편    |             |
|-----------------------------------|-------------|-------------|-------------|-------------|
|                                   | 완전모형        | 축소모형        | 완전모형        | 축소모형        |
|                                   | B(β)        | B(β)        | B(β)        | B(β)        |
| 연령                                | .02(.06)    |             | -.01(-.04)  |             |
| 교육수준                              | .03(.02)    |             | .06(.03)    |             |
| 농촌생활만족                            | .34(.15)*   | .33(.14)**  | .17(.07)    |             |
| 생활수준                              | .12(.06)    |             | .14(.08)    |             |
| 결혼이민효용 평가                         | .61(.33)*** | .58(.32)*** | .18(.10)    |             |
| 이념성향                              | -.01(-.00)  |             | -.28(-.13)* | -.26(-.12)* |
| 한국인으로서 긍지                         | -.16(-.07)  |             | .18(.09)    |             |
| intercept                         | -3.20**     | -2.40***    | -.39        | 1.43***     |
| -2 log L                          | 608.99      | 629.01      | 525.60      | 553.22      |
| Likelihood Ratio(χ <sup>2</sup> ) | 45.71***    | 40.19***    | 19.83**     | 4.77*       |
| concordant                        | 68.2%       | 62.1%       | 61.5%       | 38.0%       |
| 평균지불액(표준편차)                       | 3361(3415)  | 3361(3390)  | 3645(3538)  | 3465(3320)  |

\*p<.05 \*\*p<.01 \*\*\*p<.001

〈표 6〉 경제 및 노동력 향상을 위한 지불의사

| 변수        | 농촌지역민       |             | 다문화가족 남편     |             |
|-----------|-------------|-------------|--------------|-------------|
|           | 완전모형        | 축소모형        | 완전모형         | 축소모형        |
|           | B(β)        | B(β)        | B(β)         | B(β)        |
| 연령        | .02(.06)    |             | -.03(-.09)   |             |
| 교육수준      | .04(.02)    |             | -.06(-.03)   |             |
| 농촌생활만족    | .34(.15)**  | .33(.14)**  | .03(.01)     |             |
| 생활수준      | -.01(-.01)  |             | .17(.10)     |             |
| 결혼이민효용 평가 | .56(.30)*** | .55(.30)*** | .05(.03)     |             |
| 이념성향      | -.12(-.06)  |             | -.33(-.16)** | -.29(-.14)* |
| 한국인으로서 긍지 | -.05(-.03)  |             | .21(.11)*    | .20(.11)*   |

|                             |            |            |            |            |
|-----------------------------|------------|------------|------------|------------|
| intercept                   | -2.89*     | -2.54***   | 1.38       | .66        |
| -2 log L                    | 629.55     | 650.77     | 533.94     | 561.27     |
| Likelihood Ratio concordant | 40.64***   | 38.86***   | 17.16*     | 9.47**     |
|                             | 66.9%      | 61.3%      | 61.1%      | 51.8%      |
| 평균지불액                       | 2850(3142) | 2858(3141) | 3277(3330) | 3167(3199) |

\*p<.05 \*\*p<.01 \*\*\*p<.001

〈표 7〉 문화다양성 및 한류세계화를 위한 지불의사

| 변수                          | 농촌 지역민      |             | 다문화가족 남편    |            |
|-----------------------------|-------------|-------------|-------------|------------|
|                             | 완전모형        | 축소모형        | 완전모형        | 축소모형       |
|                             | B(β)        | B(β)        | B(β)        | B(β)       |
| 연령                          | .00(.01)    |             | -.01(-.03)  |            |
| 교육수준                        | .02(.01)    |             | -.02(-.01)  |            |
| 농촌생활만족                      | .34(.15)**  | .34(.15)**  | -.00(-.00)  |            |
| 생활수준                        | .10(.05)    |             | .19(.10)    |            |
| 결혼이민효용 평가                   | .49(.26)*** | .50(.27)*** | .05(.03)    |            |
| 이념성향                        | .08(.04)    |             | -.22(-.10)* | -.19(-.09) |
| 한국인으로서 긍지                   | -.16(-.07)  |             | .06(.03)    |            |
| intercept                   | 2.58*       | -2.45***    | .58         | 1.04**     |
| -2 log L                    | 635.30      | 657.89      | 547.56      | 572.60     |
| Likelihood Ratio concordant | 34.30***    | 33.61***    | 8.27        | 2.68       |
|                             | 64.8%       | 59.0%       | 56.3%       | 36.1%      |
| 평균지불액                       | 2719(3051)  | 2691(3035)  | 2957(3107)  | 2922(3020) |

\*p<.05 \*\*p<.01 \*\*\*p<.001

〈표 8〉 농촌 가족 및 사회유지를 위한 지불의사

| 변수               | 농촌 지역민      |             | 다문화가족 남편    |            |
|------------------|-------------|-------------|-------------|------------|
|                  | 완전모형        | 축소모형        | 완전모형        | 축소모형       |
|                  | B(β)        | B(β)        | B(β)        | B(β)       |
| 연령               | .00(.02)    |             | -.02(-.05)  |            |
| 교육수준             | -.04(-.02)  |             | -.10(-.05)  |            |
| 농촌생활만족           | .22(.10)    |             | -.08(-.03)  |            |
| 생활수준             | .21(.11)*   | .24(.12)*   | .20(.11)    |            |
| 결혼이민효용 평가        | .52(.28)*** | .52(.28)*** | .12(.07)    |            |
| 이념성향             | -.09(-.05)  |             | -.26(-.12)* | -.22(-.10) |
| 한국인으로서 긍지        | .04(.02)    |             | .27(.14)*   | .28(.15)** |
| intercept        | -3.00**     | -2.37***    | .43         | .05        |
| -2 log L         | 640.91      | 661.20      | 541.79      | 568.79     |
| Likelihood Ratio | 39.05***    | 35.14***    | 17.42**     | 10.55**    |
| concordant       | 65.7%       | 60.3%       | 60.7%       | 52.7%      |
| 평균지불액            | 2524(2975)  | 2537(2977)  | 3049(3173)  | 2952(3058) |

\*p<.05 \*\*p<.01 \*\*\*p<.001

〈표 9〉 농촌자원 가치 향상을 위한 지불의사

| 변수        | 농촌 지역민      |             | 다문화가족 남편   |            |
|-----------|-------------|-------------|------------|------------|
|           | 완전모형        | 축소모형        | 완전모형       | 축소모형       |
|           | B(β)        | B(β)        | B(β)       | B(β)       |
| 연령        | .01(.03)    |             | -.02(-.08) |            |
| 교육수준      | .01(.01)    |             | -.11(-.06) |            |
| 농촌생활만족    | .36(.16)**  | .40(.18)*** | -.00(-.00) |            |
| 생활수준      | .06(.03)    |             | .18(.10)   |            |
| 결혼이민효용 평가 | .34(.19)*** | .36(.19)*** | .07(.04)   |            |
| 이념성향      | .03(.02)    |             | -.21(-.10) |            |
| 한국인으로서 긍지 | .01(.00)    |             | .26(.14)*  | .26(.13)** |

|                             |            |            |            |            |
|-----------------------------|------------|------------|------------|------------|
| intercept                   | -2.99**    | -2.35***   | .55        | -.65       |
| -2 log L                    | 643.06     | 663.80     | 548.79     | 576.20     |
| Likelihood Ratio concordant | 22.96**    | 25.30***   | 15.13*     | 6.09**     |
|                             | 62.2%      | 57.4%      | 60.1%      | 40.8%      |
| 평균지불액                       | 2366(2800) | 2382(2822) | 2754(3038) | 2626(2860) |

\*p<.05 \*\*p<.01 \*\*\*p<.001

#### 4.3.2. WTP에 의한 다문화가 농촌사회에 미치는 기여 가치 분석

각 하위영역별로 추정된 평균지불의사액에 2010년 통계청이 제시한 농촌지역 가구 수를 곱해 다문화가족이 농촌사회에 미치는 기여가치를 총체적으로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농촌인구활력유지를 위한 다문화가족의 기여 가치에 대해 농촌지역민은 약 111억원의 가치 효과를, 농촌 다문화가족의 남편은 약 115억원의 가치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경제 및 노동력 향상에 대한 다문화가족의 기여 가치에 대해 농촌지역민은 약 95억원의 가치 효과를, 다문화가족의 남편은 약 105억원의 가치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문화다양성 및 한류세계화 효과에 대한 다문화가족의 기여 가치에 대해 농촌지역민은 약 89억원의 가치 효과를, 다문화가족 남편은 약 97억원의 가치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농촌 가족 및 사회 유지에 대한 다문화가족의 기여 가치에 대해 농촌지역민은 약 84억원의 가치 효과를, 다문화가족 남편은 약 98억원의 가치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농촌자원가치 향상에 대한 다문화가족의 기여 가치에 대해 농촌지역민은 약 79억원의 가치 효과를, 다문화가족 남편은 약 87억원의 가치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년 1회 6,000원 지불조건을 기준하여 평가한 결과 농촌지역민이 인식한 다문화가족의 기여가치는 약 458억원이었다. 이는 농촌 가구당 연 1회 13,840원을 지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다문

화가족남편이 인식한 다문화가족 기여 가치는 502억원이었다. 다문화가족이 평가한 다문화가족 기여 가치가 농촌지역민이 평가한 다문화가족 기여 가치 보다 약 44억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지역민과 다문화가족남편 모두 저출산 해소, 고령화 지연, 생산인구 증가 등 농촌인구활력 유지의 차원에서 다문화가족의 긍정적인 영향 및 기여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표 10).

〈표 10〉 농촌지역민 및 다문화가족 남편의 지불의사에 의한  
다문화가족 기여가치 효과 비교

| 하위 영역            | 농촌지역민이 인식한<br>다문화가족 기여 가치 | 다문화가족 남편이<br>인식한 다문화가족 기여 가치 |
|------------------|---------------------------|------------------------------|
| 농촌의 인구활력 유지 효과   | 111억                      | 115억                         |
| 경제 및 노동력 향상 효과   | 95억                       | 105억                         |
| 문화다양성 및 한류세계화 효과 | 89억                       | 97억                          |
| 농촌가족 및 사회 유지 효과  | 84억                       | 98억                          |
| 농촌자원 가치 향상 효과    | 79억                       | 87억                          |
| 계                | 458억                      | 502억                         |

## 5. 요약 및 결론

농촌의 다문화가족은 미혼남성들의 만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부터 저출산으로 과소화 되고 고령화된 농촌에 활력을 더하거나, 문화적인 다양성과 더불어 농촌자원을 풍부하게 하는 등 기여하는 바가 큰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 및 기여성을 경험적으로 연구하여 분석하거나, 계량화 또는 지수화하려는 작업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왔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이 농촌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및 기여가치를 가상가치평가법(CVM)을 적용하여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를 추정하고 지불의사금을 산출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첫째, 농촌지역민이 인식한 다문화가족의 기여가치는 약 458억원이었다. 이는 농촌 가구당 연 1회 13,840원을 다문화가족의 기여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특별금으로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의미한다. 비교준거집단인 다문화가족남편이 인식한 다문화가족 기여 가치는 502억원이었으며, 이는 농촌 가구당 연 1회 15,170원을 특별금으로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의미한다. 농촌 다문화가족의 남편이 평가한 다문화가족 기여 가치는 농촌지역민이 평가한 기여 가치 보다 약 44억원 높았으며 농촌 가구단위로 환산할 경우 1,330원의 차이가 있었다. 이는 다문화가족이 농촌에 미치는 기여가치에 대해 다문화가족 남편이나 농촌지역민 모두 비교적 유사한 수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농촌 주류사회와 소수민족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일체감을 향상하며 편견을 완화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를 토대로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민 인식을 보다 개연성 있게 확대 및 전환해 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5개 하위영역의 상대적 중요성의 차이는 비교적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농촌지역민과 다문화가족 남편 모두 저출산 해소, 고령화 지연, 생산인구 증가 등 농촌인구활력 유지의 차원에서 다문화가족의 긍정적인 영향 및 기여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따라서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농촌의 유지 차원에서 농촌 다문화가족의 역할을 보다 새롭게 조명하며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농촌지역민과 다문화가족 남편의 지불의사에 유의하게 작용하는 변인은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농촌지역민의 평가에는 농촌 내집단적 상황이 중요한 준거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다문화가족 남

편은 외집단적 상황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 본다. 이를 통해 볼 때 다문화가족의 남편들은 농촌지역민 보다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이나 주관적 이념성향과 같은 가치체계에 대한 몰입정도가 깊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게 느낄수록 외국인에 대한 포용성향이 크다는 연구결과(김병조 등, 2011)와 부분적으로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후속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할 것으로 본다.

넷째, 본 연구에서 이용한 지불의사(WTP) 추정모델은 Weibull model에 기초하여 Turnbull method 형태로 재구성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Spike model 등을 확대 적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추정된 지불의사금액은 다문화가족이 농촌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기여를 상징하는 지수로 해석 또는 활용되어야 하며, 또한 지불의사(WTP) 추정을 위해 제시된 기준 금액의 변동에 따라 지불의사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밝혀진 지불금액의 많고 적음에 대한 해석은 무리하다는 것을 밝혀둔다. 아울러 지불의사(WTP)를 통해 다문화가족이 농촌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기여를 포괄적이고 총체적으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금액을 매개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 효과가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과소화되고 고령화된 농촌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의 유입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 및 기여가치를 처음으로 지불의사(WTP)를 통해 수치화하여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 결과는 농촌 다문화사회의 영향 평가, 다문화정책 투자 결정의 지침, 다문화정책 설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 강수향. (2011). 이주민 유입의 인구·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내국인의 지각 과 이주민 지원 및 사회참여에 대한 내국인의 태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갑석. (2009). *다문화가정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벤처 정보 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병조, 김복수, 서호철, 오만석, 은기수, 정미량, 정재기, & 조동기. (2011). *한국의 다문화상황과 사회통합*.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 김예신, 이용진, 박화성, 남정모, 김정흠, & 신동천. (2003).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도 감소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추정에 관한 연구. *J. ENVIRON. TOXICOL.*, 18(1), 1-13.
- 김옥순. (2008). 해외체류경험과 외국어 사용능력에 따른 문화간 감수성 수준의 차이—경기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5(1), 45-67.
- 농림부. (2001).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가치평가 연구*.
- 동아일보. (2012). 다문화가족, 농촌 고령화 늦추고 출생률 높여(2012. 1월 3일자).
- 설동훈, 서문희, 이삼식, & 김명야. (2009). *다문화가족의 중장기 전망 및 대책 연구: 다문화가족의 장래인구추계 및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
- 양순미. (2001). *농촌가족의 건강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양순미. (2006).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에 대한 비교분석: 중국, 일본, 필리핀 이주여성 부부중심*. *농촌사회*, 16(2), 151-179.
- 양순미. (2009). *농촌 다문화가족의 농업 및 사회참여 활동 프로그램 개발연구. 2008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시험연구보고서(농업공학부 편)*.
- 양순미. (2011a). *한국 농촌사회의 다문화 출현 배경과 실태. 재인한인사회와 다문화 국제학술회의*.
- 양순미. (2011b). *농촌공동체, 다문화를 품다. 대산농촌문화, 통권 69호*, 17-21.
- 양순미. (2011c). *다문화는 우리사회의 성장동력...개발가능한 자원관점서 보자* (2011. 3. 18일자 칼럼). *농민신문*.
- 양순미. (2012). *아시아지역에서 한국의 농촌으로 결혼이민해 온 여성 및 그 가족들*



- 이 농촌사회에 미치는 기여도 분석. 제 27차 국제인구과학연맹세계인구총회 국내제출자 논문발표 대회 자료집.
- 양순미, 한춘희, & 양점남. (2009). 농촌 다문화여성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영향 요인 연구. *농촌지도와 개발*, 제16권 2호, 253-284.
- 이삼식, 최효진, & 박성재. (2009).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해숙. (2004). *외국인 노동력 유입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해춘, 이규용, & 조준모 (2004). 외국인력 고용의 사회적 효과. *응용경제*, 6(3), 85-111.
- 이희찬. (2002).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가치평가 방법 및 사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가치평가와 활용 심포지엄 자료집. 농촌생활연구소.
- 인테러벡. (2012). *농촌 다문화, 공존의 시대-융화와 존중으로 빚어내는 하모니(인테러벡 제60호)*. 농촌진흥청.
- 조완규. (1993). *농민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Kronauer, M. (1998). Social Exclusion and Underclass: New Concepts for the Analysis of Poverty. pp.51-75 in *Empirical Poverty Research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edited by Hans-Jürgen Andreß. Aldershot, England: Ashgate Publishing Limited.
- L.A. Times. (2006, 9, 21). For farmers, Finding a bride is a foreign affair.
- Silver, H. (1994). Social Exclusion and Social Solidarity: Three Paradigm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33(6), 531-577.

*Received 10 August 2013; Revised 3 September 2013; Accepted 11 September 2013*

## Contribution Value Estimation on Rural Community by Multi-cultural Family Effect Using WTP

Soon Mi Yang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uinro 150 Gwonseon-gu, Suwon,  
441-707. Republic of Korea

### Abstract

To estimate the WTP(Willingness to Pay) for consistent maintenance of rural multi-cultural families' contribution worth such as vitality of rural population, regional economic vitalization, cultural diversity of rural, maintenance of rural family society, and diversity of rural resource,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by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method based on Weibull model in 41 city · county of rural.

A estimation models based on Tunball models were developed and applied to WTP estimation with logistic analysis. WTP estimates for consistent maintenance of multi-cultural contribution worth by rural resident was 458 hundred million won. It means that each rural household can pay 13,840 won per annual. WTP estimates assessed by multi-cultural families' husband as a criteria for comparison was 502 hundred million won. It means that each household can pay 15,170 won per annual.

**key words** : multicultural family, rural, WTP, effect



Soon Mi Yang is a research worker and specialist at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NAAS) in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RDA) where she has study the rural families since 1995. Her research interests, since 2005, is concentrated on rural multicultural families.

Address:(441-770) Suinro 150, Gwonseon-gu, Suwon-Si, Republic of Korea

e-mail) [ysm@korea.kr](mailto:ysm@korea.kr), phone)82-31-290-0286